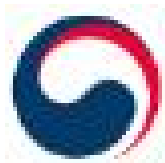

기후시민회의 운영계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1

개 요

1 배 경

- 그동안 기후위기 논의의 장 필요성 지속적 제기(국회, 시민단체)
 - 과거 기후 공론조사 사례 있으나, 단발성·정부 주도·실효성 부족 한계
- ※ 기존 공론조사와 기후시민회의 비교

구 분	공론조사	기후시민회의
상설 여부	한시(단일 주제)	상설(여러가지 주제)
안전 제안	정부 필요 의제	참여자 주도 의제 발굴
정책 반영	정책 결정 참고	기후대응위 보고 및 정책 반영

-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26.4.7. 공포, '26.10.8. 시행)에 기후시민회의 포함

[탄소중립기본법 제19조의2(기후시민회의의 설치 등)]

- ① 국가기후대응위 내에 상설기구로 기후시민회의 둠
- ② 기후시민회의는 지역, 성, 연령 고려하여 선정
- ③ 토론 결과를 기후대응위에 보고, ④ 정책 반영, ⑤ 세부사항은 시행령 위임

- 기후대응위, 기후시민회의 운영 예산 확보('26년 25억원)

※ 사업 운영대행 : 한국갤럽(모집)·피알원(행사)·갈등(숙의), 환경연구원(교육)

2 기본방향

- (목적) 국민의 삶과 직결된 기후대응 정책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역량 있는 기후 시민으로 거듭나는 **한국형 기후 공론장 구축**

* 전세계 최초 국가 단위 기후 시민 논의 상설기구

- (의제) 공개 방식으로 대국민 의견 접수(상향식)

- (역할) 기후 분야 주요 쟁점에 대해 숙의·토론하여 권고안을 도출-

- ❶ 기후정책 발굴·의제화, ❷ 생활밀착형 세부 정책 제안, ❸ 중·장기 정책방향 제시 등의 역할 수행

- 권고안은 기후대응위 심의·의결을 통해 정부정책에 반영

< 외부 기관 주요 제안 사항 >

□ 국회-기후대응위 합동 토론회('26.1.28)

- (운영) 참여단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한 구체화 필요
 - ⇒ 운영세칙에 기획·숙의참여단 각각의 세부적인 구성 및 역할을 규정
- (의제) 전문가 등이 시민참여단에 의제선정 관련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필요
 - ⇒ 외부자문단 등과 협력하여 의제선정 가이드라인 마련
- (결과) 정책 반영 결과를 기후시민회의의 최종 성과로 평가 필요
 - ⇒ 정책 반영 및 환류 기능 강화(사무처에서 이행 권고 및 실적 점검을 정기적으로 수행)
- 일반시민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네이밍과 홍보 아젠다를 발굴하고, 기후시민회의의 참여단 외 일반시민을 위한 소통창구도 필요
 - ⇒ 대국민 홍보 강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상시 운영

□ 시민단체 연합-사무처 논의('26.4.3.)

- (구성) 기후취약계층과 무관심층까지 포용하여 조화롭게 구성할 필요
 - ⇒ 참여자 모집 시 설문 조사 등을 통해 무관심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조치
 - ⇒ 지역, 연령, 성별 등에 통계적 대표성 확보하되, 미래세대에 가중치 부여
- 모든 기후공론장에 '성평등' 분과와 위원회를 두어야 함
 - ⇒ 운영 과정에서 성평등 감수성이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
- 충분한 논의를 위한 단계별 설계 필요
 - ⇒ 숙의 단계별 학습 구조 설계, 일반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환경 강사 활용, 고품질의 중립적 학습콘텐츠 제공(별도의 환경교육전문기관을 선정)

□ 민간전문가-민간위원장 자문회의('26.5.8.)

- 상설 운영으로 참여단의 활동 기간이 김, 중도 이탈자에 대해 고민할 필요
 - ⇒ 유사 사례 평균 이탈률(10% 내외)을 고려해 참여단 규모를 확정(200명+@)
- rolling 방식 장단점 명확, 연임자 선정 및 임기 종료자의 역할 등 세심하게 설계
 - ⇒ 최초 선정시와 마찬가지로 연임자는 인구 비례 무작위 선정 예정
- 의제 선정과 분과 운영, 다양한 공론화 기법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
 - ⇒ 의제는 참여자들이 직접 결정, 다양한 의제 후보군 발굴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 분과 설치 근거를 마련하되, 의제 성격 등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규정

2

기후시민회의의 구성

◆ 모두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상설·지속형 기후 정책 논의 창구



1 구성 방식

- 무작위 전화번호로 5천명(선정인원의 25배) 확보후 200명+@ 선정
 - * 중도 이탈률(10% 내외) 고려하여 총 220명(200명+@) 선정
- 효과적인 논의를 위하여 '기획' 및 '숙의' 참여단으로 구분
 - '기획' : 20명, 숙의의제 결정, 논의방식 제시 등(참여단 중 희망자 조사)
 - ← 외부자문단*(10명)이 자문 수행 * 내·외부 추천받아 구성
 - '숙의' : 180명, 필요시 의제 개수, 토론 일정 등에 따라 감축분과(60명×2개) + 적응분과(60명×1개) 등으로 세분화
- 지역, 성별, 연령 등의 인구통계를 균형 있게 고려
 - 2050년 기후위기 당사자인 미래세대를 최우선 배려*(10~17세 20명) 하고, 장애인(11명)·다문화(11명) 등을 고르게 포함
 - * 참여단 구성시 10~30대 인구에 110% 가중치 부여해 선발

구분	계	연령별			성별	
		10~17세	...	70대 이상	남자	여자
계	215	19		10	102	113
수도권	140	11		6	65	75
충청권	26	2		3	16	10
전라권	22	4		1	10	12
경상권	27	2		0	11	16

② 임 기 : 1년 (1년 단위 절반(1/2) 재모집)

- 참여단은 논의 연속성을 위해 **1년 단위 Rolling 방식**으로 선정
 - 1년차 운영 종료(1기 해단) 후 지역·연령·성별 비례를 고려하여 무작위 선정된 절반(1/2) 연임, 나머지 절반(1/2)은 활동 종료
- * 최초 선발된 참여단의 지역·연령·성별 비례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무작위 추출

< Rolling 운영 방식 개요 >

	최초	1년 경과	2년 경과
기획참여단	20명	→ 10명 계속, 10명 교체	→ 2년 활동한 10명 교체
숙의참여단	180명	→ 90명 계속, 90명 교체	→ 2년 활동한 90명 교체

- 임기 종료 후에도 기후시민회의의 참여 경험을 활용하여 일상 속 기후활동에 참여하고, 학교·지역사회 기후공론화에 지속 참여하도록 역할 부여

③ 지원 조직

- 내-외부 추천을 통해 학계·산업계 관련 분야* 전문가 10 명으로 외부자문단(단장 : 하지원)을 구성, 기획참여단 자문 역할 수행
 - * 환경교육·공론화·갈등관리·감축정책·적응정책·기후과학 6개 분야
- 기후시민회의 의제 선정 가이드라인 등 기획참여단에 제공되는 주요 가이드라인 및 참고자료 공동 집필 및 감수
- 기후시민회의의 운영 규정 초안 작성 시 제언 및 감수
- 기타 기획참여단 활동 전반에 걸쳐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자문
- 기후대응위 위원 중 대표성·전문성·참여 희망 등을 고려해 기후시민회의 특별위원회(7명 이내) 구성
 - 기후시민회의의 조직 구성 관련 사항 검토 및 의결
 - 기후시민회의가 제출한 권고안 사전심의
 - 정책반영 결정된 권고안의 이행결과 점검 및 환류

3

기후시민회의의 운영

◆ 논의 전 과정을 시민이 주도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후시민회의

1 의제 선정

- 기후시민회의 기획참여단 주도로 선정
 - 기후시민회의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하여 대국민 의제를 접수
 - * climatevoice.kr, 기후대응위 및 관계 부처에서 제안하는 의제도 참고
 - 기획참여단 주도로 '26년 기후시민회의 논의의제 최종 선정(~6월)
 - * '의제선정 가이드라인'(사무처 제작·자문단 감수) 제공, 의제 선정 워크숍(6.13~14) 예정
- ※ 속의 의제 및 일정(예시)

분 과		'26.5. ← → '26.12.
감 축	60명	← → 햇빛소득마을 활성화 (수시과제)
	60명	
적 응	60명	← → 폭염·한파 대책
		← → 기후취약계층 지원

2 논의 절차 : 의제 학습 → 속의·토론 → 의견 도출

- (학습) 누구나 이해 가능한 쉽고 치우치지 않은 기후시민회의 교육 커리큘럼을 확립하여 단기간 내 속의 역량 집중 향상 지원
 - 전담기관을 선정(KEI)하여 기후·속의 교육의 전문성과 일관성 확보
 - 시민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환경강사를 활용한 2단계 교육·학습 구조를 도입(의제별 전문가 → 환경강사 → 시민참여단)
 - 체계적 커리큘럼 하에 다양한 온·오프라인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미래세대 및 장애인 등 학습자 맞춤형 교육 콘텐츠 추가 제공
 - 명확한 출처 표기, 공식 통계 활용 등 중립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년차 운영 후 공정성, 중립성을 객관적으로 평가·검증

○ (숙의·토론) 숙의참여단 주도로 분과별 토론 추진(7월~)

- 사전 학습 → 소그룹 활동 → 질의응답(전문가·환경강사·모데레이터) → 분과별 토론 → 종합 토론 등 단계별로 숙의 실시
- 필요시 의제 개수, 토론 일정 등에 따라 감축분과, 적응분과 등으로 나누고, 토론 효율을 위해 각 분과별 소그룹(12명) 운영
- 지방 거주자의 편의를 고려, 오프라인 모임은 권역별 균형 있게 배분
- 논의 과정은 영상으로 기록하고, 온라인에 투명하게 공개
(실시간 중계는 참여단 개인정보 보호 등을 고려하여 판단)
- 공정한 의견청취를 위해 필요시 분과별 이해관계자 공청회 진행

< 우리의 약속: 기후시민회의의 그라운드 룰 >

- ① **참여**, 나의 경험을 나눠 주세요.
- ② **인정**, 틀린 의견이란 없습니다.
- ③ **기회**, 적극적으로 경청합니다.
- ④ **공정**, 발언을 독점하지 않습니다.
- ⑤ **존중**, 차별적이거나 배제하는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 ⑥ **책임**, 혼란스럽고, 압도되고, 답이 보이지 않아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 (결과도출) 분과별 토론회 및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 권고안 마련(~10월)

- 합의기준 : **분과별 토론회는 75% 이상, 전체회의는 2/3 이상 찬성**을 기준으로 기획참여단이 운영 효율성과 민주성을 고려해 결정토록 안내
- * 국내외 사례 : 50% 이상-권고안·2/3 이상-강력 권고안(관악기후시민회의), 2/3 이상(스페인), 80% 이상(브뤼셀)
- 소수 의견은 병기하고, 미채택된 권고안*은 숙의참여단에 재이송하거나 추가 논의 안건으로 이관

* 세부 내용은 '기후시민회의의 운영규정'(기획참여단에서 확정)을 통해 결정

- ◆ 기후시민 권고안의 강력한 이행력을 담보하고, 숙의 성과는 투명하게 검증
- ◆ 제도 기반 위에서 기후 의제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되는 풀뿌리 공론장 확산

1 이행력 확보 제도화

- (후속 조치) 기후대응위에 숙의 결과 및 권고안 보고(10월)
 - 기후대응위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11월) → 소관 부처 전달(12월)
 - 사무처에서 기후시민회의의 권고안에 대한 소관 부처의 응답 이행 및 정책 반영 여부 점검(권고안 전달 후 3개월 내 응답)
 - * 관계기관 및 지자체의 응답의무규정 신설 추진(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안 13조의 3)
 - 필요시 정부업무평가 시 사무처에서 의견 제시, 국가기본계획 및 NDC과제 이행점검과 연계 등 권고안의 실효성 강화
- (평가·환류) 평가·개선 연구용역을 통해 기후시민회의 전 과정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단계별 공정성을 진단해 차년도 개선과제 발굴
 - * 기후대응위 사무처 자체 정책연구용역으로 실시
- (제도화) 기후시민회의의 세부 운영규정 및 권고안 응답의무 규정 신설

「탄소중립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주요 내용>

▶ 법 제19조의2(기후시민회의의 설치 등)

- ① 기후대응위 내에 상설기구로 기후시민회의 둠
- ② 기후시민회의는 지역, 성, 연령 등 고려하여 선정
- ③ 기후대응위 보고, ④ 정책 반영, ⑤ 세부사항은 시행령 위임

▶ 시행령안 ① 참여자 수 규정, 미래세대(청소년·청년) 추가 배정, ② 분과 단위 운영

- ③ 권고안에 대한 소관 기관의 3개월 이내 응답의무,
- ④ 반영 결과에 대한 이행점검 실시 및 위원회 보고

▶ 기후대응위 운영세칙안 제13조, 제16~18조

- ① 기후대응위 내에 기후시민회의 특별위원회 구성, ② 기획참여단, 숙의참여단의 인원과 역할, 임기 ③ 기후시민회의 운영 절차 ④ 외부자문단 임기, 역할

2 기후시민회의의 모델 확산

- (홍보) 기후시민회의의 운영 단계별로 차별화하여 전략적 홍보
 - 사전 인지도 제고 : 기후시민회의의 필요성과 개념, 참여자 모집 안내
 - * 예시 : 기후시민회의의 분과별 참여자 월간 릴레이 인터뷰 SNS 카드뉴스
 - 운영중 참여 확산 : 일반 국민에 간접 참여 기회 제공 및 기후시민회의의 숙의 전 과정을 공유하여 사회 전반의 긍정적 체감도 제고
 - * 예시 : 분과별 참여자 릴레이 인터뷰, 월간 카드뉴스 및 숏폼 영상
 - 사후 성과공유 : 1년차 참여단 활동 결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
 - * JTBC 등 미디어 협업을 기반으로 다큐 및 유튜브 채널 방송프로 제작 추진
 - 예시 : “한눈에 보는 기후시민회의”, “어린이 기후공론장” 특집 프로그램 편성
- (대국민 소통)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지능형 숙의 플랫폼 구축·운영
 - 국민이 제안한 의제를 AI가 분석, 요약하고 핵심 쟁점을 도출
 - 모든 토론 데이터를 기록, 구조화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아카이빙(Archiving)
 - 중장기적으로 숙의 전 과정을 플랫폼으로 이식한 ‘AI 기후공론장’으로 고도화
- (모델 확산) 기후시민회의의 참여모델을 정립하여 지역·국제사회에 전파
 - 지역사회, 학교 등 일상 속 풀뿌리 기후공론장으로 확대
 - * 1년차 운영 방식 확정 후 2~3개 지원 기관 대상으로 시범 사업
 - 국제사회에 한국형 기후시민회의의 모델 우수사례 공유·전파
 - * 국제기후위원회 네트워크(ICCN) 기후거버넌스 포럼(‘26.6.), 국제 기후시민의회 지식 네트워크(KNOCA) 등에 기후시민회의의 소개 추진

구 분	주요 내용	주 관
~'26.5. 기후시민회의 구성·발족	- 외부자문단(10명) 구성 - 기후시민회의 특별위원회(7명 내외) 구성	기후대응위 사무처, 대행사
'26.5.~12. (8개월) 1차년도 운영	- 온라인 학습(5월~) (필수) 숙의 역량 / 기후변화 일반 (선택) 탄소중립의 이해 등	기후시민회의
	- 의제 선정(기획참여단) - 대국민 온라인 의제 접수(5.16.~) - 의제 선정 워크숍(6.13~14)	
	- 숙의 및 결과 도출(숙의참여단) - 분과별 토론 - 종합 토론 - 전체 토론 및 권고안 작성	기후시민회의, 기후대응위 사무처
	- 권고안 기후대응위 심의·의결(10~12월) - 특위 사전 심의 / 전체회의 상정, 심의 - 소관 부처에 권고안 통보	
'27.1.~12. (1년) 2차년도 운영	1차년도 평가·환류, 백서 제작	기후대응위 사무처
	- 기획참여단 20명, 숙의참여단 절반(90명) 재구성 2차년도 운영 - 의제 선정(기획참여단) - 숙의 및 결과 도출(숙의참여단)	기후시민회의, 기후대응위 사무처, 대행사
	기후대응위에 권고안 제출, 기후대응위 심의·의결	기후시민회의
	2차년도 평가·환류, 백서 제작 - 기후시민회의 확산 시범사업	기후대응위 사무처

참고1

기후시민회의 유사모델 비교

구분	영국	독일	아일랜드	프랑스	대한민국
명칭	Climate Assembly UK (영국기후의회)	Bürgerrat Klima (기후시민의회)	Citizens' Assembly (시민의회)	Convention Citoyenne pour le Climat (기후시민협약)	기후시민회의
설치주체	하원	시민사회 + 의회	의회	정부	정부
선발방식	무작위 추출 + 대표성 보정	무작위 추출 + 대표성 보정	무작위 추출 + 대표성 보정	무작위 추출 + 대표성 보정	무작위 추출 + 대표성 보정
참여규모	100여명	160명	100명	150명	200명+10명 (외부자문단)
운영기간	6주 (한시운영)	9주 (한시운영)	1년 (한시운영)	9개월 (한시운영)	상설운영 (임기 1년)
주요의제	2050 탄소중립정책	1.5℃ 달성 정책	기후대응정책	온실가스 40%감축정책	탄소중립정책 ※선발 후 상향식 선정
권한	의회 자문	정책 권고 (의회 제출)	의회자문 (의회공식검토)	정부정책 일부 반영	정부정책 반영
권고안 수	51개	84개	13개	149개	未定 (상향식)

※ 노란색 박스 : 국내 기후시민회의와 유사제도

참고2

26년 기후시민회의 주요일정

회차	일자	기획	숙의	행사명	주요내용	지역
1차	5.16 (반일)	전체		발대식	<1부> - 개회사(총리), 축사(강금실 기후대사) - 위촉장 수여, 상호존중서약서 낭독 <2부> - 기후시민회의 운영 계획 안내(이창훈) - 기조강연(이준이) 등	서울 강남구 (과총회관)
2차	6.13 (1박2일)	○	X	1차 의제워크숍 (1박2일)	- 1차 의제 선정(국내외 시민회의 의제 사례 Study 후 의제선정 가이드에 따라 의제 검토) - 운영규정 마련(초안 및 선택 가능 옵션 등 참고자료 제공 예정) * 외부자문단 참여	충남 서천 (국립생태원)
3차	6.14 (1박2일)	○	X			
4차	7.4	전체		전체회의	- 1차 의제 공유 및 운영규정 의결 - 분과/분임 결정 - 기후변화 시뮬레이션 교육(En-Road 롤플레이팅)	충북 청주 (오스코)
5차	8.29	○	X	2차 의제워크숍	- 추가 의제 발굴 - (필요시) 운영규정 개정 사항 논의	서울 동대문구 (스페이스 쉐어)
		X	○	분과별 회의 (감축1/감축2/ 적응)	- 의제별 주제 강연 - 각 의제별 분과별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6차	9.12 (1박2일)	X	○	종합토론회 (1박2일)	분과별 권고안 초안 작성	경북 경주
7차	9.13 (1박2일)	X	○		분과별 권고안 확정 (각 분과 인원의 75% 동의)	
8차	10.17 (1일)	전체		전체회의	전체권고안 의결 (전체 참여단 인원의 2/3 동의) * 의결된 권고안은 기후대응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할 예정(10~12월 중)	서울 강남구 (과총회관)
9차	11.14 (반일)	전체		최종보고회	결과공유, 성과보고회	전남 광주 등

* 주요행사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